

#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청정성 평가

—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김형주\* · 서은아\*\* · 김미형\*\*\*

|| 차례 ||

- I. 머리말
- II. 방송언어 진단 기준 및 가중치 산정
- III. 방송언어 청정성 분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국가 재난 수준의 ‘메르스 사태’를 다룬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청정성을 4가지 범주, 12가지 항목에 따라 평가하였다. 60분당 오류 개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 수치를 보면, 공공성 범주와 정확성 범주의 오류 빈도가 높고, 세부 평가 항목별로는 ‘부정확한 자막 표기’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불필요하게 어려운 표현’, ‘부적절한 어휘’, ‘품격이 낮은 표현’, ‘폭력적 표현’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방송 프로그램별로 청정성을 살펴본 결과, 가장 청정한 프로그램은 ‘일요진단(6월 7일)’으로, 가장 청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강적들(7월 1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평가 항목별 순위에서는 ‘차별 표현’과 관련하여 ‘강적들(7월 1일)’은 ‘매우 청정함’으로, ‘일요진단(6월 7일)’은 ‘청정하지 않음’으로 평가되었고, ‘품격이 낮은 표현’과 관련하여 ‘일요진단(6월 7일)’은 ‘매우 청정함’으로, ‘강적들(7월 1일)’은 ‘매우 청정하지 않음’으로, ‘편파 표현’과 관련하여 ‘일요진단(6월 7일)’은 ‘매우 청정함’으로, ‘강적들(7월 1일)’

---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은 ‘청정하지 않음’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전체 평가 항목을 종합하여 청정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함께 세부 평가 항목별로 청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방송언어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시사 토크 프로그램, 메르스, 청정성

## I. 머리말

이 연구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청정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방송사별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4가지 범주,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방송언어 청정성 진단 기준에 따라 분당 오류 개수를 확인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평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메르스 사태’<sup>1)</sup>를 다룬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청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한 장르인 시사 토크는 뉴스쇼와 시사토론, 토크쇼 등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장르 개념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실제로 방송사마다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장르를 각기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분류를 따르지 않고, 1인 이상의 패널이 참여하여 시사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토크 프로그램을 시사 토크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송된 시사 토크 프로그램

---

1) 이 연구는 본 연구진이 수행한 ‘2015년 방송언어 개선 사업: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평가 지수 연구’(국립국어원)에서 ‘메르스 사태’만을 분리하여, 전문가들이 시사 토크 장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항목인 ‘차별 표현’, ‘품격이 낮은 표현’, ‘편파적 표현’의 청정성을 분석한 것이다.

중 ‘페르스 사태’를 다룬 지상파 4개(KBS 박상범의 시사진단, KBS 일요진단, MBC 이슈를 말한다, SBS 이슈인사이드)와 종합편성 6개(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채널A 캐도난마, MBN 뉴스파이터, JTBC 썰전, TV 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TV 조선 강적들) 프로그램 10회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진단 대상 프로그램은 다음 <표1>과 같다.

채널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특징	장르 <sup>2)</sup>
지상파	KBS	박상범의 시사진단	생방송/비고정패널/전체관람가	시사
		일요진단	생방송/비고정패널/전체관람가	시사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녹화방송/비고정패널/전체관람가	시사 교양
	SBS	SBS 이슈인사이드	생방송/비고정패널/전체관람가	교양
종합 편성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생방송/고정패널/전체관람가	교양
		캐도난마	생방송/비고정패널/전체관람가	시사
	JTBC	썰전	녹화방송/고정패널/15세이상관람가	교양
	MBN	뉴스파이터	생방송/고정패널/전체관람가	뉴스
	TV 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생방송/비고정패널/전체관람가	시사
강적들		녹화방송/고정패널/15세이상관람가	예능	

<표1> 시사 토크 프로그램

연구 대상은 지상파와 종합편성, 생방송과 녹화방송, 고정 패널과 비고정 패널, 전체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등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고르게 선정하였다.

2)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밝힌 프로그램 장르. 세부 장르는 밝히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 II. 방송언어 청정성 진단 기준 및 가중치 산정

방송언어의 청정성을 진단하는 기준은 연구 대상이 같더라도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평가 결과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준이 달라지면 평가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단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진단 기준의 도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방송언어의 청정성을 진단할 목적으로 개발된 박재현·김한샘(2015)의 진단 기준을 사용하였다(<표2>). 박재현·김한샘(2015)의 진단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오류 유형은 예비 진단을 거쳐 확인한 다음, 평가 항목의 내용 설명에 추가하여 진단하였다(추가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함).

평가 범주	평가 항목
공공성	품격이 낮은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비속어, 욕설, 반말 등)
	불필요하게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외래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전문어 등)
	집단 간 소통을 저해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은어, 유행어, 신조어, 약어 등)
공정성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국가, 민족, 인종, 지역, 성별, 연령, 장애 등과 관련된 차별 표현)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특정인, 특정 계층에 대한 우호적·적대적 표현 등)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과장된 표현, 극단적 표현, <u>자극적 표현</u> 등)
건전성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성적 수치심 유발, 성적 장면 연상, 성적 유희 관련 표현 등)
	폭력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비하 또는 조롱 표현, 위협 또는 협박 표현 등)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보편적 가치관·문화적 관습에서 벗어난 표현, 권위적 표현 등)
정확성	우리말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비문법적 표현, 번역투 표현 등)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비표준어, 문맥에 맞지 않는 어휘, 군더더기 표현 등)
	자막에 부정확한 표기를 사용하였는가?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로마자표기법에 위배되는 표기)

〈표2〉 방송언어 청정성 진단 기준

위의 진단 기준에 따라 오류 빈도를 확인한 다음, 이를 근거로 청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해야 한다. 즉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항목과 덜 중요하게 다루어도 되는 항목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어학자와 방송전문가<sup>3)</sup>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sup>4)</sup>하여 분석적 계층화 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따른 평가 가중치를 산정<sup>5)</sup>하였다. 국어학자와 방송전문가 각 14명씩 총 28명의 평균값을 AHP 공식에 따라 계산한 상대적 중요도는 <표5><sup>6)</sup>와 같다. 답변의 일관성이 20% 이하(CR 계수 0.2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참고로 AHP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목적이므로 양적 연구와 달리 대규모 표본이 필요하지 않다.

3) 방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아나운서와 방송심의회위원 등을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4) 설문 조사지와 설문 조사 방법은 <표3>과 <표4> 참고.

5) 설문지 구성 및 분석 작업에는 박재현·김한샘이 참여하였다.

6)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의 값은 ‘2015년 방송언어 개선 사업: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평가 지수 연구’(국립국어원)에서 얻은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 요인 A와 요인 B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평가 범주 중 ‘공공성’이 ‘정확성’보다 매우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요인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B	
	절대적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더 중요	약간 더 중요	똑같 이 중요	약간 더 중요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절대 적 더 중요
공공성	9	7√	5	3	1	3	5	7	9	정확성

〈표3〉 평가 범주의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설문조사 구성과 응답 방법

■ 요인 A와 요인 B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평가 항목 중 ‘품격이 낮은 표현’이 ‘불필요하게 어려운 표현’보다 매우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요인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B	
	절대적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더 중요	약간 더 중요	똑같 이 중요	약간 더 중요	더 중요	매우 더 중요		절대 적 더 중요
<b>품격이 낮은 표현을 사용하였는가?</b> (비속어, 욕설, 반말 등)	9	7√	5	3	1	3	5	7	9	<b>불필요하게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b> (외래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전문어 등)

〈표4〉 평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설문조사 구성과 응답 방법

평가 범주	상대적 중요도 (A)	평가 항목	상대적 중요도 (B)	종합적 상대적 중요도 (A)×(B)
공공성	29.30	품격이 낮은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52.65	15.43
		불필요하게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20.95	6.14
		집단 간 소통을 저해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26.40	7.74

공정성	33.75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47.20	15.93
		편파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38.15	12.87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14.65	4.94
건전성	17.90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35.90	6.43
		폭력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45.60	8.16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18.50	3.31
정확성	19.05	우리말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33.85	6.45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32.30	6.15
		자막에 부정확한 표기를 사용하였는가?	33.85	6.45
	100.0			100

〈표5〉 시사 토크 프로그램 방송언어에 대한 전문가의 상대적 중요도

〈표5〉를 통해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언어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공정성 범주에서는 ‘품격 낮은 표현(반말)’을 ‘불필요하게 어려운 표현’이나 ‘집단 간 소통을 저해하는 표현’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가 한자어 등에 익숙한 50대 이상<sup>7)</sup>인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둘째, 공정성 범주에서는 ‘차별적 표현’과 ‘편파적 표현’을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편파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셋째, 건전성 범주에서는 ‘폭력적 표현(조롱)’을 ‘선정적 표현’이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 표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폭력을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7) 장소원(2010:123·125).

넷째, 정확성 범주에서는 ‘우리말의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이나 ‘부적절한 자막 표기’를 ‘부적절한 어휘 표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확성 범주 자체에 동일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품격이 낮은 반말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 폭력적인 조롱 표현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Ⅲ. 방송언어 청정성 분석

2015년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송된 ‘메르스’ 관련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청정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기에는 전체 표본 수가 10개로 너무 적기 때문에 표준편차에 따라 청정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60분당 오류 개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값을 중심으로 하인드먼(hyndman)<sup>8)</sup>의 백분위수(percentile)를 이용하여 백분위 등수가 20에 해당하는 값 이하는 ‘매우 청정함(A등급)’으로, 40에 해당하는 값 이하는 ‘청정함(B등급)’으로, 60에 해당하는 값 이하는 ‘보통(C등급)’으로, 80에 해당하는 값 이하는 ‘청정하지 못함(D등급)’으로, 80에 해당하는 값 이상은 ‘매우 청정하지 못함(E등급)’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방송언어 청정성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일요진단(6월 7일)’으로,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강적들(7월 1일)’로 나타났다. 이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일요진단(6월 7일)’과 ‘이슈를 말한다(6월 7일)’는 A등급으

8) Hyndman, R. J. and Fan, Y.(1996:361 - 365).

로, ‘시사진단(6월 3·5·8일)’과 ‘뉴스파이터(6월 4일)’는 B등급으로, ‘캐도 난마(6월 4일)’와 ‘이슈인사이드(6월 3일)’는 C등급으로, ‘돌직구쇼(6월 4·5일)’와 ‘시사탱크(6월 3일)’는 D등급으로, ‘썰전(6월 4·11일)’과 ‘강적들(7월 1일)’은 E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방송 유형별로는 지상파 방송보다 종편 방송, 비고정 채널 방송보다 고정 채널 방송, 전체 관람가 방송보다 15세 이상 관람가 방송의 청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프로그램의 청정지수는 다음 <표6>과 같다.

프로그램	시사 진단	이슈를 말한다	이슈인 사이드	일요 진단	강적들	뉴스 파이터	돌직 구쇼	시사 탱크	썰전	캐도 난마	
방송일자	6월 3·5·8일	6월 7일	6월 3일	6월 7일	7월 1일	6월 4일	6월 4·5일	6월 3일	6월 4·11일	6월 4일	
방송시간(분)	44	43	48	49	45	60	61	51	50	50	
발화음절	16666	14156	24635	15730	14631	20269	20357	28279	18055	17745	
자막음절	994	1054	4081	1054	8395	3589	2394	3959	12129	6493	
오류개수	88	56	133	54	237	134	154	223	206	109	
평가 항목	1	0	43	0	0	1564	77	61	18	518	111
	2	234	240	253	271	221	117	205	289	258	214
	3	21	0	58	0	258	39	23	9	74	56
	4	65	67	0	59	0	32	188	56	0	19
	5	35	36	0	0	51	13	89	91	46	77
	6	0	14	0	0	33	25	0	41	18	24
	7	0	0	0	0	0	0	0	0	0	0
	8	0	23	10	10	228	65	64	106	186	88
	9	5	0	0	0	13	3	10	23	0	4
	10	35	27	89	8	17	77	63	23	23	85
	11	327	69	254	75	74	111	241	253	288	89
	12	79	54	395	24	568	374	209	835	526	194
1-12 총계	801	573	1059	446	3027	933	1154	1744	1938	960	
청정지수	B	A	C	A	E	B	D	D	E	C	

<표6>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 청정지수(60분당 오류×가중치)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특정 오류 유형이 전체 청정지수를 큰 폭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물론 특정 오류 유형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해당 방송의 청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정하기 위해 각 오류 유형별로 5점 척도로 평정한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청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정의 방식보다 전체 오류 개수에 근거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다양한 오류 유형에 근거하여 방송언어의 청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4가지 평가 범주별<sup>9)</sup> 또는 12가지 평가 항목별 청정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은 어떤 범주, 어떤 항목을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12가지 평가 항목 중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차별 표현’과 ‘품격이 낮은 표현’, ‘편파적 표현’의 청정성을 따로 산정하였다.

## 1. 차별 표현

‘차별 표현’은 공정성 범주에 속하며, 국가나 민족, 인종, 지역, 성,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진행자 및 출연자 또는 제3자를 차별하는 표현을 가리킨다. ‘메르스’ 관련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총 27회의 차별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그중에 지역 차별 표현이 19회로 가장 많았고, 신분 차별 표현

9)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본 연구진이 수행한 ‘2015년 방송언어 개선 사업: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평가 지수 연구’(국립국어원)에서는 4가지 범주별 청정성을 산출하였다.

4회, 학력 차별 표현 3회, 성 차별 표현 1회 순으로 사용되었다.

- (1) a. [발화\_지역 차별] 저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뉴스파이터 6월 4일)
- b. [발화\_신분 차별] 사병들이나 동료 병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돌직구쇼 6월 4일)
- c. [발화\_학력 차별] 가장 권위 있는 이 대학의 의대를 졸업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시사탱크 6월 3일)
- d. [발화\_성 차별] 자제분들은 학교 휴교령 내리니까 뭐라고 그러던가요? (시사탱크 6월 3일)

예문 (1a)에서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해당 지역을 ‘지방’과 구별하는 차별 인식을, 예문 (1b)에서는 계급을 기준으로 ‘사병’을 ‘동료 병사’와 구분하는 차별 인식을, 예문 (1c)에서는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가장 권위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대학과 학과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차별 인식을, 예문 (1d)에서는 ‘자녀’라는 말을 대신하여 ‘자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성 중심적인 차별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차별 표현’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방송언어의 청정성을 살펴본 결과, 전혀 차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슈인사이드(6월 3일)’을 비롯하여 ‘강적들(7월 1일)’과 ‘철전(6월 4·11일)’은 A등급으로, 1910를 받은 ‘캐도난마(6월 4일)’는 B등급으로, 32를 받은 ‘뉴스파이터(6월 4일)’와 56을 받은 ‘시사탱크(6월 3일)’는 C등급으로, 59를 받은 ‘일요진단(6월 7일)’과 65를 받은 ‘시사진단(6월 3·5·8일)’은 D등급으로, 67을 받은 ‘이슈를 말한다(6월 7일)’와 188을 받은 ‘돌직구쇼(6월 4·5일)’는 E등급으로 평가되었다.

---

10) 60분당 오류 개수에 가중치를 곱한 수치를 반올림하여 표시하였다.

전체 평가 항목을 합산하여 E등급으로 평가된 ‘강적들(7월 1일)’은 ‘차별 표현’ 항목에서 A등급으로 평가된 반면에 전체 평가 항목을 합산하여 A등급으로 평가된 ‘일요진단(6월 7일)’은 ‘차별 표현’ 항목에서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일요진단’에는 ‘차별 표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썰전(6월 4·11일)’ 역시 전체 평가 항목을 합산했을 때는 E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차별 표현’ 항목에서는 A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이슈를 말한다(6월 7일)’ 역시 전체 평가 항목을 합산했을 때는 A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차별 표현’ 항목에서는 E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슈를 말한다’에도 ‘차별 표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2. 품격 낮은 표현

‘품격 낮은 표현’은 공공성 항목에 속하며, 진행자 및 출연자 또는 제3자에게 비속어와 욕설, 반말을 사용한 표현을 가리킨다. ‘메르스’ 관련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총 122회의 품격 낮은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반말 표현이 117회로 가장 많고, 욕설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비속어는 ‘놈’ 3회, ‘촌구석’ 1회, ‘이빨’ 1회가 사용되었다.

- (2) a. [발화\_반말] 신빙성이라는 게 이완구, 황교안 이때부터가 아닌가?  
(쾌도난마 6월 4일)
- b. [발화\_반말] 갑수 선생님의 전문 분야는 노무현이 아니라 MB야.  
(강적들 7월 1일)
- c. [발화\_비속어] 이 의사가 완전히 나쁜 놀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썰전 6월 11일)

예문 (2a,b)에는 이름 뒤에 직책이나 직함을 생략함으로써 해당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은 반말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와 동시에 어말에 상대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반말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문 (2c)에 사용된 ‘놈’은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비속어이다.

‘품격 낮은 표현’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방송언어의 청정성을 살펴본 결과, 품격 낮은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시사진단(6월 3·5·8일)’을 비롯하여 ‘이슈인사이드(6월 3일)’와 ‘일요진단(6월 7일)’은 A등급으로, 18을 받은 ‘시사뱅크(6월 3일)’는 B등급으로, 43을 받은 ‘이슈를 말한다(6월 7일)’와 60을 받은 ‘돌직구쇼(6월 4·5일)’는 C등급으로, 77을 받은 ‘뉴스파이터(6월 4일)’와 111을 받은 ‘쾌도난마(6월 4일)’는 D등급으로, 518을 받은 ‘썰전(6월 4·11일)’과 1564를 받은 강적들(7월 1일)은 E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평가 항목을 합산하여 C등급으로 평가된 ‘이슈인사이드(6월 3일)’는 ‘품격 낮은 표현’ 항목에서 A등급으로 평가된 반면에 전체 평가 항목을 합산하여 A등급으로 평가된 ‘이슈를 말한다(6월 7일)’는 ‘품격 낮은 표현’ 항목에서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이슈를 말한다’에는 ‘품격 낮은 표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3. 편파 표현

‘편파 표현’은 공정성 항목에 속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에 대한 우호적 표현과 적대적 표현을 뜻한다. ‘메르스’ 관련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총 29회의 편파적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특정인에 대한 우호적 표현이 15회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계층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7회, 특정인에 대한 적대적 표현 4회, 특정 계층에 대한 우호적 표현 2회, 기타 1회 사용되었다.

- (3) a. [발화\_특정인에 대한 우호적 표현] 의사 윤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사진단 6월 5일)
- b. [발화\_특정 계층에 대한 적대적 표현]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공무원 자기 일 하고 월급이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 국민에 대해 책임감이 없는 거죠. (돌직구쇼 6월 4일)
- c. [발화\_특정인에 대한 적대적 표현]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자가 생긴 병원 이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빨리 대응해서 아무 대책 없이 발표했을 때 정말 그것은 나중에 이걸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슈를 말한다, 6월 7일)
- d. [발화\_특정 계층에 대한 우호적 표현] 그에 비해서 입법부인 국회는 굉장히 약한 권력기관이에요.

예문 (3a)는 특정인, 즉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에 대한 우호적 표현으로, 예문 (3b)는 특정 계층, 즉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에 대한 적대적 표현으로, 예문 (3c)는 특정인, 즉 서울시장에 대한 적대적 표현으로, 예문 (3d)는 특정 계층, 즉 국회에 대한 우호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편파 표현’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방송언어 청정성을 살펴본 결과, 편파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슈인사이드(6월 3일)’와 ‘일요진단(6월 7일)’은 A등급으로, 13을 받은 ‘뉴스파이터(6월 4일)’와 35를 받은 ‘시사진단(6월 3·5·8일)’은 B등급으로, 36을 받은 ‘이슈를 말한다(6월 7일)’와 46을 받은 ‘썰전(6월 4·11일)’은 C등급으로, 51을 받은 ‘강적들(7월 1일)’과 77을 받은 ‘쾌도난마(6월 4일)’는 D등급으로, 89를 받은 ‘돌직구쇼(6월 4·5일)’와 91을 받은 ‘시사탱크(6월 3일)’는 E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평가 항목을 합산하여 C등급으로 평가된 ‘이슈인사이드(6월 3일)’는 ‘편파 표현’ 항목에서 A등급으로 평가된 반면에 전체 평가 항목을 합산

하여 A등급으로 평가된 ‘이슈를 말한다(6월 7일)’는 ‘품격 낮은 표현’ 항목에서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이슈를 말한다’에는 ‘편파 표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IV. 맺음말

오늘날 우리는 다채널 시대의 개막과 함께 방송의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가 더욱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만큼 방송언어가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의 질적 평가 방식으로서 방송언어의 청정성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메르스’ 관련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언어 청정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정성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일요진단(6월 7일)’으로,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강적들(7월 1일)’로 평가되었다. 이는 2015년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송된 ‘메르스’ 관련 시사 토크 프로그램 10개를 대상으로 4가지 범주에 걸쳐, 12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 평가 결과는 ‘일요진단(6월 7일)’이 매우 청정한 방송이므로 개선할 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0개의 프로그램 중 12가지 평가 항목의 종합적인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A등급을 받았지만, ‘차별 표현’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 방송언어의 청정성에서는 D등급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적들(7월 1일)’은 매우 청정하지 않은 방송이므로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차별 표현’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 방송언어의 청정성에서는 A등급으로 평가되어 개선

할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품격 낮은 표현’에서는 E등급으로, ‘편파 표현’에서는 D등급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청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체 평가 항목을 합산한 결과는 해당 방송의 오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범주별·항목별 청정성을 평가한 결과는 정확히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항목별 평가 결과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 강남옥·박재현, 「공공언어의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 지수 개발 연구」, 『인문연구』 6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p.123-156.
- 김대행 외,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김병길, 「방송언어의 평가지수 측정: 뉴스보도와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편, 방송언어 방송화법 평가지수 개발 및 주요 프로그램 방송인 평가, 2004.
- 박재현·김한샘, 「분석적 계층화 과정을 활용한 방송언어 평가 척도 연구」, 『사회언어학』 23-3, 한국사회언어학회, 2015, pp.87-108.
- 박지영·김예란·송병우, 「중편 시사 토크쇼와 사담의 저널리즘: 왜도난마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2-2, 성곡언론문화재단, 2014, pp.5-63.
- 서은아, 「방송언어의 공공성 기준에 관한 연구」, 『겨레어문학』 47, 겨레어문학회, 2011, pp.91-116.
- 이준복, 「한국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나타난 대화연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비교」,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 정은교·금희조, 정·보인가 오락인가: 정치 예능 토크쇼의 정치적 효과, 『한국언론학

- 보』 58-5, 한국언론학회, 2014, pp.362-390.
- 주창윤, 『방송 프로그램 품위지수 개발 및 조사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 한규섭, 『저널리즘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본 정치·시사토크』, 『관훈저널』 133, 관훈클럽, 2014, pp.74-80.
- 황하성·정영희·김설아, 『방송 프로그램의 언어 건전성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이론』 8-2, 한국언론학회, 2012, pp.197-241.
- Hyndman, R. J. & Fan, Y., Sample quantiles in statistical packages, American Statistician 50, 1996, pp.361-365.
-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2010.
- MB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2009.

**Abstract**

Developing index of the assessment for Broadcasting Languages  
– current affairs TV Talk programs –

Kim, Hyeong-Ju · Seo, Eun-A · Kim, Mi-Hyoung

This study focuses on establishing a theoretical foundation on which a “cleanliness index” of current affairs programs and TV talk shows can be calculated, and on diagnosing the cleanliness of current affairs talk show programs accordingly. This is intended to evaluate the present broadcast language status and to improve upon it with a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broadcast programs, in relation to the comments of falling standard of the broadcast program qualities due to the excessive competition among the broadcasters since the reorganization of the broadcast market since 2011.

To this end, among the current affairs talk show programs televised from July to August in 2015, 10 episodes from four terrestrial TV programs and six general programs including ‘MERS’ are targeted to diagnose the status of broadcast language.

As a result, it was diagnosed that among the ‘MERS’-related current affairs talk show programs, the program with the highest clean broadcast language was ‘일요진단’ broadcasted on the 7th June, and the program with the lowest index was ‘강적들’ broadcasted on the 1st July. And the episode of the program ‘이슈를 말한다’ aired on the 7th June was diagnosed as clean, but the episode of the program ‘이슈인사이드’ aired on the 3rd June was diagnosed as not clean. The episode of ‘뉴스파이터’ broadcasted on the 4th June was diagnosed as normal.

Key Word : Current Affairs TV Talk Show, MERS, Clean Index of Broadcasting Language

김형주

소속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전자우편 : khj16@smu.ac.kr

서은아

소속 :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전자우편 : daye4994@smu.ac.kr

김미형

소속 :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mekim@smu.ac.kr

이 논문은 2016년 3월 1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